

구체적이고  
폭넓은 이야기를  
들려줘

한 달에 한번씩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히는 『희망세상』을 나는 가끔씩 읽어보곤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이거나 깊은 건 아니었지만 '민주'나 '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들은 전체적인 흐름이나 큰 사건에 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알고 싶은 만큼, 듣고 싶은 만큼을 알고들을 수는 없었다. 그런 나에게 『희망세상』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알지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알고 싶었지만 혹은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 했고 알 수 없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작은 잡지 『희망세상』. 우리들이 모르고 지나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소중한 사실들을 다시금 깨우쳐 주려 노력하는 잡지.

민주화운동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애를 써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전보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알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세상』에서 나는 미처 보지 못 했던 사실들과 세상을 읽을 수 있었고,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런 『희망세상』에게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홍지원(고교생)

너무 유명한  
분들만 다루는  
것 같아

전교조에 몸 담고 있는 교사입니다. 매달 받아보는 『희망세상』을 다는 아니지만 관심 있는 꼭지들을 챙겨서 잘 보고 있습니다. 만드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군요. 전교조 관련 자료들이 사업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에 '이달의 사료'에 소개된 윤영규 선생님 기사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 옆에는 꼬박꼬박 사료수집 광고도 함께 실리는데요. 수집된 사료들은 언제나 볼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아직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맨 처음에 다루어지는 기사가 훌륭한 민주인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너무 유명한 분들만 다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야 물론 매우 훌륭한 분들이지만 어찌보면 유명해진 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에 못지 않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 분들을 찾아 소개하면 꼭 앞에 서지 않았어도 열심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공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정화(교사)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희망세상』 제작과 관련하여 후기, 제안, 기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엽서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채택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 『희망세상』 담당자 앞  
전 화 : 02-3709-7537 팩 스 : 02-3709-7530 이 메 일 : hjo@kdemo.or.kr